제7강 윈난, 신화왕국3

가. 먀오족 신화- 먀오족은 치우의 후손인가?

- 중국 내에 거주하는 먀오족은 2010년 기준으로 946만 명. 오랜 역사를 지닌 민족이며 본래 중원 지역에 살고 있다가 남쪽으로 이주해왔다는 전승을 갖고 있다. 구이저우성[貴州省] 지역에 대부분 모여 살고 있으며 후난성 서부와 윈난성 동부지역에도 거주한다. 자수와 은 장신구는 예술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먀오족 사람들이 제사 때에 머리에 쓰는 소뿔 모양의 은 모자와 나비 모양의 은목걸이, 옷에 수놓아진 자수 문양들은 민족 집단 이주의 역사적 기억을 담고 있기도 하다. 많은 수의 소를 잡아 지내는 '고장절牯臟節'이라는 제사를 7년 혹은 13년에 한 번씩 거행하며, 대나무로 만든 악기인 루성[蘆笙]을 불며 추는 루성춤으로도 유명하다. □먀오족의 오래된 노래(苗族古歌)□라는 창세서사시를 전승하고 있다. 윈난성의 먀오족은 '곡다오(화산절)'이라는 제사를 지내면서 민족 정체성을 확인한다.

1) 구이저우 먀오족의 창세신화

○ 풍목楓木에서 날아오른 나비엄마[蝴蝶媽媽], 열두 개의 알을 낳다

- 나무를 자신들의 영혼이 나온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아이가 태어나면 나무를 심다.
- 나비는 자신들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비에게 상을 차려주다.
- 프쉬케--나비--영혼
- 동아시아에서 나비는 종종 이루지 못한 사랑의 상징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 나비엄마가 낳은 열두 개의 알에서 인간과 신과 동물이 탄생한다.
- 나비가 낳은 알을 품어준 것은 거대한 새.

○ 먀오족의 시조 쟝양, 그리고 우레신의 대립 구도가 의미하는 것

알 속에서 태어난 인간과 신, 동물들은 세상을 두고 내기를 한다.
- '인세차지 경쟁'과 '내기', 그리고 '속임수' 모티프가 등장한다.
- 인간인 쟝양이 세상의 주인이 된 것은 불을 사용할 줄 알았다는 것.
- 하늘로 쫓겨간 우레신과 인간 쟝양의 끊임없는 대립이 의미하는 것은?

- 대홍수와 조롱박 속에 숨어 홍수에서 살아남은 남매, 남매의 혼인과 인류 재탄생.

- 쟝양의 죽음과 우레신의 승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먀오족의 오래된 노래[苗族古歌]』에 등장하는 거인신들

- 최초의 거인신들, 힘을 모아 세상을 창조하다.

- 창조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실패하는 신들.

-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힘을 합치는 먀오족 거인신화의 의미는?

- 민족을 이끌고 머나먼 이주의 길을 떠나는 - 거인신들.

○ 먀오족 이주의 과정에 관한 신화와 그들의 복식

- 먀오족은 치우의 후손인가?

- 집단 이주의 기억을 복식에 새겨 넣는 사람들

2) 윈난 먀오족의 <곡다오[화산절花山節]> 습속과 치우

- 화산절-먀오족 말로 '곡다오'라고 한다.('산비탈에서 조상께 제사를 지내다'라는 의미)

- 산꼭대기에 높다란 장대를 세우고 조상에게 제사를 바치는 사람들.

- 붉은 색과 초록색, 노란색, 푸른색 천을 매단 소나무와 삼나무 등으로 만든 굵은 장대(화간花杆)를 세운다.

- 먀오왕이 수탉을 바쳐 제사를 올린다.

"오늘은 상서로운 날/ 오늘 이곳에서 천신과 지신께/ 동서남북의 신들께 제사를 올립니다/ 먀오족의 조상 즈요우에게/ 또한 여러 조상님들께도 제사를 드립니다/ 먀오족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께 제사를 올립니다/ 우리가 일 년 내내 평안하고/ 농사가 잘 되어 풍년이 들기를/ 사람과 가축 모두 건강하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도록/ 조상님들의 가호가 있으시길!"

먀오족의 지도자 '즈요우'가 황제에게 패했고, 전쟁 통에 즈요우의 후손들이 이리저리 흩어졌으나 높이 솟은 장대를 보고 모여들었다고 한다. 즈요우는 그들을 이끌고 황하와 장강을 건너 머나먼 남쪽으로 이주해왔다고 한다.

그 장대는 지금은 마을의 공터 넓은 곳에 세워져있지만 원래는 먀오족이 주로 거주하는 산비탈에 세워졌다. 높이 솟은 그 장대를 보고 먀오족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이다. 그 장대는 먀오족 사람들의 정체성을 상징한다. 지금은 놀이의 기능이 훨씬 강화되었지만 원래 그날은 머나먼 이주의 과정을 거쳐 그곳에 정착하여 농사지으며 살아온 먀오족이 자신들의 조상을 기억하는 날이다.

나. 와족 신화- 소의 머리를 자르고, 곡식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까닭은?

-와족의 현재 인구는 35만 명 쯤 된다. 윈난성 서남부 산간 지역에 거주하는데 란창강[瀾滄江]과 누산[怒山]산맥이 있는 그곳을 '아와산[阿佤山]' 지역이라 부른다. 그들의 복식 역시 검은색을 기조로 하며 나무북춤[木鼓舞]과 여성들이 긴 머리를 휘두르며 추는 춤인 솔발무甩髮舞가 유명하다. 그들의 조상이 동굴에서부터 걸어 나왔다는 신화를 담은 창세서사시 □쓰강리[司崗里]□가 잘 알려져 있다. 산간지역이라서 밭벼「旱稻」를 주로 경작하며 곡식을 매우 중시하여 곡식의 영혼에게 들려주는 노래들을 전승하기도 한다.

1) 곡물 다양성과 문화, 언어 다양성의 관계

- 곡물학자 니콜라이 바빌로프, 재배작물의 단일화가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 일찍이 경고하다. 작물 다양성이 사라지고 수익성 높은 단일 작물에만 집중한다면 그리하여 각 - , 민족이 살아가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길러오던 전통 작물이 사라진다면, 즉 유전적 단일성만 증가한다면 생태계는 건강함을 잃게 된다.

- 종의 다양성이 사라진다는 것은 인류의 생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화다양성과 작물다양성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다양한 작물이 사라지면 문화의 다양성도 사라진다. '종자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이 그 지역사회의 건강성을 말해주는 척도가 된다면 인류 역시 지역마다 다양한 '문화 포트폴리오'를 유지해야 건강해진다.

2) 곡식을 위해 부르는 와족의 노래

"좁쌀이여, 좁쌀이여!
그대들이 땅에서 자라나 우리를 먹여 살리지요.
그대들을 먹고 우리는 자란답니다.
곡식 한 알, 좁쌀 한 알 함부로 진흙탕 속에 버리지 않아요.
물속에 난 발자국 흔적에 떨어뜨리지도 않지요.
그대들을 타작마당에 흘리지도 않고 나무 밑에 버리지도 않아요.
그대들이 강물 따라 흘러가게 두지도 않지요.
우리는 그대들을 싣고 돌아와 건조한 곳에 잘 있게 해준답니다."(와족, 『씨뿌리는 노래』)

- 농사를 지어 수확을 할 때쯤이면 곡식의 영혼에게 제사를 지내주면서 이런 노래를 부른다.

세상 모든 곡식에는 다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영혼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다.

이런 노래를 들은 곡식들은 기꺼이 사람들의 먹을거리가 되어 준다.

"벼의 영혼, 좁쌀의 영혼,
옥수수와 메밀, 기장, 홍미紅米의 영혼들이여!
그대들이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지요.
그대들이 우리를 길러준답니다.
우리는 그대들을 꼭 움켜쥐고, 그대들을 꽉 잡지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우리 집에 계시고,
그대들의 어머니가 우리 창고에 계셔요.
우리가 그대들을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우리가 그대들을 모시고 창고로 가요."(와족, 『곡식의 영혼을 위해 부르는 노래』)

3) 와족의 창세서사시『쓰강리[司崗里]』

- 와족의 시조모인 여신에게 곡식의 종자가 없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

- 홍수가 지나간 후, 금과 은이 좁쌀, 홍미와 싸움을 시작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금과 은이 좁쌀의 뺨을 때렸다.

- 그 바람에 좁쌀과 홍미가 숨어버렸다.

-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졌다. 나무를 먹고 흙을 먹고 금과 은까지 먹어치우려 하니 여신이 곡식의 종자를 찾아 나섰다.

- 숨어버린 좁쌀과 홍미를 다시 찾아낸 것은 사람이 아닌 뱀과 거머리였다.

- 돌아온 곡식을 반가워하며 노래하는 사람들. 곡식을 위한 노래를 부르다.

"이제 우리 씨 뿌리러 가자.
모두들 함께 그 땅으로 가자.
모든 사람, 모든 곡식의 씨앗들 함께 가자.
아이들도 함께 가자.
진실한 마음으로 같이 가자.

어? 토란님, 그대는 왜 아직 안 오시는 건가요?
아하, 곡식의 씨앗이여, 우리들의 씨앗이여!
좁쌀 나리, 홍미 아가씨, 언덕 위에서 자라나길!
우거지게 자라나 이파리도 건강하고 낱알도 주렁주렁 매달리길!
아래 위 곡식 창고가 가득 차길!"

- 곡식의 영혼에게 제사를 올리고, 씨를 뿌릴 때에도 곡식을 거둘 때에도 경건하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신미절新米節)

- 좁쌀을 '나리'라고 부르고 홍미를 '아가씨'라고 부르며 곡식의 영혼을 '곡신할머니'라고 부르는 사람들.

- 곡식은 인간의 힘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상신과 자연이 함께 인간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함.

- 식물유전학의 관점에서 보아도 종자는 '살아 숨 쉬며 다음 세대를 재생산할 수 있는 유기체'. 곡식, 특히 씨앗은 살아있는 존재이니 그들을 위해 노래를 불러주는 것은 당연한 일.

"대나무 통을 둥둥 두드리며 그대들을 부릅니다.
무서운 들짐승들 때문에 도망쳤나요?
배고픈 새들 때문에 숨었나요?
원숭이를 피하려고 도망쳤나요?
대숲에 숨어서 추우시죠?
나무 등걸 구멍에서 잠드셨나요?
비가 내리면 비를 피할 곳도 없으시죠?
바람이 불면 숨을 곳도 없지요?
자, 이제 돌아오세요!
그대들이 좋아하는 찰밥과 말린 고기, 달걀을 차려놓았어요.
그대들이 좋아하는 술도 갖다 놓았어요.
어서 돌아와서 드세요."

"쌀의 영혼이여,
홍미의 영혼, 콩과 좁쌀의 영혼이여!
모두들 배불리 드셨나요?
그럼 이제 돌아가야지요.
걸을 수 없는 분들은 내 등에 업히세요.
힘이 없는 분들은 내 손을 잡으세요.

우리 함께 집으로 돌아가요 !"(징포족의 노래)

"곡식의 영혼이여, 그대가 왕입니다.
곡식의 영혼이여, 그대가 주인입니다...
한 톨의 곡식은 천 냥의 황금보다 소중하고,
한 알의 곡식은 만근의 은보다 중요하지요.
인간이, 생명이 그대들에게 기대고 있어요."(다이족,「곡식의 영혼을 부르는 노래」)

- 죽음을 무릅쓰고 온갖 모험을 겪은 뒤 큰 상을 마다하고 곡식의 종자만을 얻어서 돌아오는 신화 속의 영웅들(자청비).

- 작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언어 다양성도 높고 야생동물다양성도 높다. 작물의 다양성이 사라지면 언어 역시 다양성을 잃는다. 거대 자본에 의한 곡물 단일화와 영어라는 하나의 언어에 묻혀 소수의 언어들이 사라져가는 현상은 매우 닮아있다. 소수의 언어, 즉 토속어와 방언에는 그들 민족의 조상들이 대대로 전해온 '생태지식'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식물도 종의 다양성을 유지해야 병충해나 기근을 견뎌낼 수 있듯, 인간사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 와족의 소머리 제사와 솔발무甩髮舞, 엽두獵頭습속의 의미